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당론으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 등 3법 발의 추진... “25일 목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려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당협회의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당론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모 언론사와 전화통화에서 “오는 25일 당론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며 “당정이 발표할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일부로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안 발의를 위해서는 대표 발의원을 포함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발의한 ‘박용진 3법’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안의 경우 찬성 의원을 섭외하지 못해 발의를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문제가 됐던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박 의원은 추진하는 당론 발의가 성사되면 민주당 의원 전원 이 예외 없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돼 의원 발의가 용이해진다. 아울러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현행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보조금으로 지급되면 유치원 부정이 발견될 경우 환수 및 형량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행 지원금 형태로는 환수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부당사용시

정부보조금,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 등 처벌규정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적발시 원명과 원장명도 공시토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회계 등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원명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했다. 원장이 설립자일 경우 셀프 징계가 되지 않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부실급식이 문제가 되도 처벌할 수 없다. /뉴스시

김관영 의원실-한전 군산지사 에너지 취약계층 사랑나눔

군산이 지역구인 김관영 국회의원의 실과 한국전력 군산지사(지사장 정보용, 노조위원장 이수길)는 20일 군산시 대야면에 위치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찾아 따뜻한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한국전력 군산지사 사회봉사단은 국회의원의실과 함께 천정수리, 도배 등 집수리와 전기배선 등 교체했다. 봉사활동에 활용한 기금은 ‘한전 러브펀드’에서 마련했고 한전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기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후원금으로 조성한 ‘한전 러브펀드’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지난 19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린 2018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 회원들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선홍 전북상공회의소 회장,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송하진 도지사, 안재성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김용현 전북경영자총협회 회장)

국토부 항공정책실 공무원 34.5% 정석인하학원 출신

항공 관련 핵심부서의 경우 공무원 78명 중 43명이 정석인하학원 소속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의 34.5%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이사로 있는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 산하 대학인 인하대 학교와 한국항공대학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하가, 각 항공사의 과태료,



징계 결정, 운항증명 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항공운항과, 항공안전과, 항공기술과, 항공교통과 공무원의 경우에는 78명의 공무원 중 43명(55.1%)이 정석인하학원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경·사진)이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내 모든 공무원들의 대학교 이상 학력’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 168명 중 58명이 한진그룹 산하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 출신으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항공대 26명, 항공대 대학원 16명, 인하대 대학원 9명, 인하대 5명, 인하공업전문대학 2명 등이다.

항공대와 인하대는 국내 항공 분야 교육기관 가운데 가장 오랜 전통의 대학이라 이 학교 출신이 많이 포진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전국 81개 대학 130개

학과에 항공 관련 학과가 있는 가운데 유독 국토부 항공정책실 내에 특정 대학 출신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동영 의원은 “항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내 관련부서 직원 상당수가 대한항공의 학교재단인 정석인하학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과연 공정한 항공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면서 “부적절한 학파/칼파의 고리를 끊고 공정한 항공정책을 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홍악법 잡겠다고 만든 ‘디엔에이법’ 시민도 잡네?

살인범 체취 작년 32명으로 2013년보다 87% ↓
폭력사범 체취 1만881명으로 2013년보다 41% ↑
쌍용차 해고 노동자 등 대상 무차별적 체취 이뤄져



최근 5년간 살인 등 홍악법에 대한 디엔에이 체취는 크게 줄어든 반면, 오히려 폭력사범에 대한 체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입법 당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사진)이 2018년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죄명별 디엔에이체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44명이었던 살인범 등에 대한 체취 인원은 2017년 32명으로 87%가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폭력사범 등에 대한 체취는 7,706명에서 1만881명으로 41%나 증가했다.

디엔에이 체취의 법적근거가 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재범의 우려가 높은 홍악범이나 강력범을 신속히 검거하겠다는 목적 하에 제정됐다.

그러나 실제 입법 취지와 달리 쌍용차 해고 노동자나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자, 학내 시위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체취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더욱이 지난 8월 현재가 디엔에이법의 연장선상인 제8조이 체취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와 불복절차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디엔에이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홍악범을 잡겠다고 만든 법이 일반시민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권침해수단으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며, “영장절차조항 개정과 함께 대상범죄의 범위 역시 입법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문제도 반드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마사회 용역계약서 독소조항 가득

관련 기관 부당 특약 심사지침에서 문제 있어

국회 김종회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사진)이 지난 19일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따르면 마사회와 관계기관들의 용역계약서 시 갑질 독소조항이 있는 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1차적으로 일반계약서를 작성, 이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에 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별도의 ‘계약특수조건’을 맺고 있다.

2018년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으로 용역근



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했다. 메뉴얼에는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3권 제약 ▲과도한 복무규율에서 부당·불공정 조항 개선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계약특수조건으로 맺어진 계약들의 부당함의 기준을 만들고자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만들어서 위법성을 심사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예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마사회 관련 기관인 ▲렛츠런파크서울 구·신관판대, 부산경남 환경미화 용역특수조건 ▲영등포문화공감센터 주차관리 및 청소용역 특수조건 ▲장수목장 특수조건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환경미화용역 특수조건, 부당 특약 심사지침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성 기자

모두가 탐내던 바로 그 자리-
누구나 살고 싶은 **오투그란데!**

모현 오투그란데 | 프리미어 |

10월 19일 GRAND OPEN

10월 25일 1순위 청약

모현 오투그란데 PREMIUM 6

 First 멀티교통망 <small>23번·27번국도,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KTX익산역 등</small>	 First 교육환경 <small>단지 인근 익산시립모현도서관, 초·중·고교가 밀집된</small>
 First 생활인프라 <small>바로 앞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시네마, 우체국, 경찰서 등</small>	 First 주거환경 <small>단지 인근 배산재자연호수공원, 모현공원, 배산재체육공원 등</small>
 First 생활인프라 <small>전북최초 하트주택(Heart Home) 및 호캬실 시설 설계, 필터 고체 가능한 환기 시스템 전 침실 적용</small>	 First 브랜드 <small>전북 내 가장신성적 1위, 30여 년 역사의 든든한 건설기업</small>

1522-3382

모델하우스: 익산시 평동로 632(인하동 1가 134-3번지) | 84㎡ (253세대), 118㎡ (85세대)
현장: 익산시 모현동 731번지 | 총 338세대